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對中 수출 절벽 극복 방안
- 서쪽으로 눈을 돌려라

목 차

■ 對中 수출 절벽 극복 방안 - 서쪽으로 눈을 돌려라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중국의 경제력 이동	2
3. 중국의 권역별 수입 구조 현황	3
4. 권역별 對韓 수입 현황	6
5. 시사점	8

Executive Summary

<요 약>

■ 개요

중국은 여전히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중부와 서부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동부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서부 지역의 경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이는 우리기업에게 중서부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중국 31개의 성(省)을 8개 권역별로 나누어 경제성장률, GDP 비중, 수입 비중, 수입 구조 변화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중국의 경제력 이동

최근 중서부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동부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 전체 GDP 가운데 중서부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전체 GDP 중 중부, 서남, 서북 지역의 비중이 각각 2000년 19.2%, 11.1%, 6.4%에서 2015년 20.3%, 12.1%, 8.0%로 증가했다. 또한 중국 전체 수입 가운데 중서부 전체 지역 비중이 동기간 7.3%에서 12.9%로 증가하면서 중서부의 경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 중국의 권역별 수입 구조 현황

< 중국 권역별 성(省)위치와 구성현황 >



① 동부 : (동북) 동북에서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기계, IT 수입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석유화학 수입 비중은 2000년 14.6%에서 2015년 33.2%로 전체 수입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환발해) 환발해는 자동차의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대 수입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 수입 비중이 높았던 IT, 기계의 비중은 각각 2000년 31.1%, 16.5%에서 13.6%, 8.1%로 하락했다. (산둥) 산둥의 수입 품목 중 석유화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광물, IT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 수입 비중은 2000년 10.0%에서 2015년 29.3%로 약 3배 증가했다. (화동) 화동은 IT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최대 수입품목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기계, 석유화학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IT 비중은 2000년 22.6%에서 2015년 25.4%로 증가한 반면, 기계와 석유화학은 동기간 각각 15.7%, 9.1%

에서 11.3%, 8.7%로 축소되었다. (화남) 중국 대표적인 전자·통신 업종의 조립기지인 화남지역의 최대 수입품목은 IT이다. IT 수입 비중은 2000년 25.0%에서 2015년 39.0%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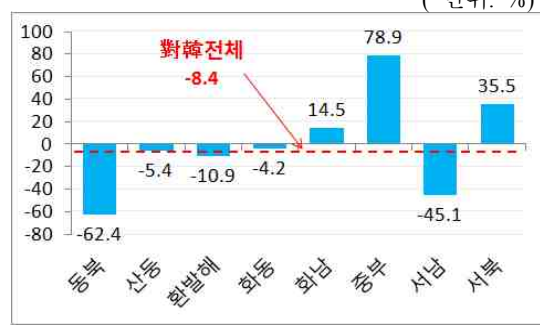
② 중부 : (중부) 중부는 IT 수입 비중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최대 수입품목으로 부상한 반면 2008년에 최대 수입품목인 광물의 수입 비중이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IT 수입 비중이 2008년 6.0%에서 2015년 43.0%로 증가한 반면 광물은 동기간 41.6%에서 18.5%로 크게 축소되었다.

③ 서부 : (서남) 서남은 IT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최대 수입품목이 된 반면 기계 수입 비중은 점차 축소되어 최대 수입품목 자리를 내주었다. IT 수입 비중은 2000년 13.1%에서 2015년 32.9%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동기간 기계는 24.2%에서 14.1%로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서북) 서북은 석유화학과 IT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전체 수입의 50%를 차지한다. 석유화학과 IT 수입 비중은 각각 2000년 3.1%, 5.9%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32.4%, 20.9%로 크게 증가하면서 서북 수입의 53.3%를 차지했다.

■ 권역별 對韓 수입 현황

최근 중국의 對韓 수입 중 중서부 지역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동, 중부, 서북 지역의 한국산 제품 점유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상승하였다. 중서부 지역의 수입 비중이 2000년 3.7%에서 2015년 10.6%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동부지역의 의존도가 높다. 또한 중부, 서북 지역의 한국산 제품 시장 점유율은 각각 2000년 7.0%, 1.6%에서 2015년 13.6%, 5.3%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서부와 중부의 수입 증가율이 중국 전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동북, 환발해, 서남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권역 對韓 수입 증가율은 총 對韓 수입 증가율 -8.4%를 상회해 수출 측면에 중서부 지역의 매력도가 높다.

< 2015년 기준 권역별 총 수입 증가율 > < 2015년 기준 권역별 對韓 수입 증가율 >
(단위: %)



자료 : 무역협회.

■ 시사점

중서부 지역 중심의 고성장과 교역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별 산업 구조, 지역별 경제성장 고려 등 지역별 맞춤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접근 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둘째, 이미 발전 수준이 궤도에 오른 동부보다 향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는 서부지역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정부주도의 중국식 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지방 정부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1. 개요

○ 중국은 여전히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최근 중부와 서부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동부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서부 지역의 경제 비중이 확대

- 중서부 지역 경제 영향력 확대는 우리 기업에게 중서부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최근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對中 수출 증가율도 급감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별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한 對中 수출 확대 전략이 필요
- 최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對韓 수입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부지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연구 방법

- 중국의 31개의 성(省)을 8개의 권역별로 나누어 경제 성장률, GDP 비중, 수입 구조 변화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

< 중국 권역별 성(省)위치와 구성현황 >



권역	동북	환발해	산둥	화동	화남	중부	서남	서북
성(省)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	상하이 장수 저장	푸젠 광둥 하이난	산시 장시 안후이 허난 후베이 후난	광시 충칭 쓰촨 GUI저우 윈난 티벳	네이멍구 산시 간수 칭하이 닝샤 신장

2. 중국의 경제력 이동

○ 최근 중부와 서부지역의 경제 영향력 증대

- 최근 중서부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동부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
 - 중부, 서남, 서북 경제 성장률이 환발해, 산둥, 화동, 화남 등 동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이에 따라 중국 전체 GDP 가운데 중서부 지역 비중이 점차 확대
 - 중국 전체 GDP 중 중부, 서남, 서북 지역의 비중이 각각 2000년 19.2%, 11.1%, 6.4%에서 2015년 20.3%, 12.1%, 8.0%로 증가
 - 산둥을 제외한 환발해, 화동, 화남 등 대부분의 동부 지역의 GDP 비중은 축소

< 중국 권역별 경제 성장률 >

구분	2000	2005	2010	2015 (%)
동북	8.8	12.1	13.6	5.1
환발해	10.7	13.5	13.3	7.7
산둥	10.3	15.0	12.3	8.0
화동	10.9	12.9	11.6	7.8
화남	9.9	12.1	14.1	8.3
중부	8.8	12.6	14.1	7.8
서남	8.6	11.9	14.0	9.6
서북	9.8	13.9	13.5	8.1

< 중국 권역별 GDP 비중 >

구분	2000	2005	2010	2015 (%)
동북	9.9	8.6	8.6	8.0
환발해	10.0	10.5	10.0	9.6
산둥	8.4	9.2	9.0	8.7
화동	19.7	20.7	19.7	19.1
화남	15.2	15.1	14.4	14.2
중부	19.2	18.8	19.7	20.3
서남	11.1	10.3	10.8	12.1
서북	6.4	6.8	7.9	8.0

자료 : CEIC.

주 : 경제성장률과 GDP는 권역별(성별) 기간 단순평균을 의미.

- 또한, 중국 전체 수입 가운데 중서부 지역의 비중이 점차 증가

< 중국 권역별 수입 비중 추이 >

	2000	2005	2010	2015 (%)
동북	5.6	4.8	5.3	5.0
환발해	12.6	10.8	12.0	11.9
산둥	5.4	6.3	8.2	8.2
화동	28.4	38.0	35.5	33.9
화남	40.8	33.4	28.7	28.1
중부	3.6	3.3	4.0	5.7
서남	1.8	1.8	2.7	4.6
서북	1.9	1.7	2.1	2.6

자료 : 무역협회.

3. 중국의 권역별 수입 구조 현황

○ 동북 지역과 환발해 지역은 자동차와 석유화학의 수입 비중이 늘어나는 반면 기계, IT 비중은 점차 축소

- 동북은 석유화학과 자동차 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석유화학의 수입 비중은 2000년 14.6%에서 2015년 33.2%로 전체 수입의 1/3을 차지
- 한편 기계, IT 수입 비중은 각각 동기간 17.3%, 15.0%에서 8.5%, 6.8%로 크게 축소

- 환발해는 자동차, IT, 광물 등이 주요 수입 품목임

- 2000년에 자동차 수입 비중은 2.1%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17.5%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IT 수입 비중은 2000년 31.1%에서 2015년 13.6%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상위 5대 업종 동북 수입 시장 구조 >
(단위: %)

구분	동북지역 수입 구조 변화		
	'00	'08	'15
석유화학	14.6	36.8	33.2
자동차	5.1	7.4	11.6
기계	17.3	11.6	8.5
IT	15.0	7.0	6.8
유기화학	3.0	0.9	6.3
계	55.0	63.7	66.4

< 상위 5대 업종 환발해 수입 시장 구조 >
(단위: %)

구분	환발해 수입 구조 변화		
	'00	'08	'15
자동차	2.1	8.5	17.5
IT	31.1	22.9	13.6
광물	1.0	14.3	12.6
석유화학	7.4	9.4	9.2
기계	16.5	10.7	8.1
계	58.1	65.8	61.0

자료 : 무역협회.

주 : 업종은 HS코드 기준으로 석유화학(HS 27), 자동차(HS 87), 기계(HS84), IT(HS85), 유기화학(HS29), 광물(HS26)로 분류.

○ 산둥지역은 석유화학, 화동지역은 IT가 가장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

- 산둥의 수입품목 중 석유화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광물, IT업 순으로 나타남
 - 석유화학 수입 비중은 2000년 10.0%에서 2015년 29.3%로 약 3배 증가
- 화동은 IT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최대 수입품목으로 유지되었으며, 다음으로 기계, 석유화학 순으로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
 - IT 수입 비중은 2000년 22.6%에서 2015년 25.4%로 증가
 - 한편, 기계와 석유화학은 동기간 각각 15.7%, 9.1%에서 11.3%, 8.7%로 축소

< 상위 5대 업종 산둥 수입 시장 구조 >
(단위: %)

구분	산둥 수입 구조 변화		
	'00	'08	'15
석유화학	10.0	28.1	29.3
광물	2.2	15.3	12.2
IT	10.8	12.4	11.5
기계	13.4	9.0	5.8
지방종자등	6.0	5.2	6.0
계	42.4	70.0	64.8

< 상위 5대 업종 화동 수입 시장 구조 >
(단위: %)

구분	화동 수입 구조 변화		
	'00	'08	'15
IT	22.6	24.7	25.4
기계	15.7	13.7	11.3
석유화학	9.1	13.3	8.7
정밀기계	3.9	9.0	7.7
유기화학	6.5	6.9	6.0
계	57.8	67.6	59.1

자료 : 무역협회.

주 : 업종은 HS코드 기준으로 석유화학(HS 27), 자동차(HS 87), 기계(HS84), IT(HS85), 유기화학(HS29), 광물(HS26), 지방종자(HS 12)로 분류.

○ 화남과 중부 지역에서 IT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음

-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통신 업종의 조립기지인 화남지역의 최대 수입 품목은 IT 산업임
 - IT, 정밀기계 산업의 수입 비중은 각각 2000년 25.0%, 2.6%에서 2015년 39.0%, 7.4%로 증가

- 중부 지역은 IT 수입 비중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최대 수입품목이 된 반면 2008년에 최대 수입업종이 광물의 비중이 절반 이상 줄어들음
 - IT 산업 수입 비중은 2008년 6.0%에서 2015년 43.0%로 크게 증가한 반면 광물은 동기간 41.6%에서 18.5%로 크게 축소

< 상위 5대 업종 화남 수입 시장 구조 >
(단위: %)

구분	화남 수입 구조 변화		
	'00	'08	'15
IT	25.0	32.4	39.0
석유화학	8.2	13.4	9.8
기계	13.7	11.3	9.7
정밀기계	2.6	8.1	7.4
플라스틱	9.4	6.3	5.4
계	58.9	71.5	71.3

< 상위 5대 업종 중부 수입 시장 구조 >
(단위: %)

구분	중부 수입 구조 변화		
	'00	'08	'15
IT	6.9	6.0	43.0
광물	10.9	41.6	18.5
기계	19.2	16.2	7.5
정밀기계	3.2	3.6	3.5
구리	1.4	3.0	3.0
계	41.6	70.4	75.5

자료 : 무역협회.

주 : 업종은 HS코드 기준으로 석유화학(HS 27), 자동차(HS 87), 기계(HS84), IT(HS85), 유기화학(HS29), 광물(HS26), 지방중지(HS 12), 플라스틱(HS39), 구리(HS74)로 분류.

○ 서남과 서북 지역은 IT, 석유화학 수입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기계, 정밀기계의 수입 비중이 줄어들음

- 서남은 IT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최대 수입품목이 된 반면 기계 비중은 점차 축소되어 최대 수입품목 자리를 내 줌
 - IT 수입 비중은 2000년 13.1%에서 2015년 32.9%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동기간 기계는 24.2%에서 14.1%로 절반으로 축소
- 서북은 석유화학과 IT의 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
 - 석유화학과 IT 수입 비중은 각각 2000년 3.1%, 5.9%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32.4%, 20.9%로 크게 증가하면서 서북 수입의 53.3%를 차지

< 상위 5대 업종 서남 수입 시장 구조 >
(단위: %)

구분	서남 수입 구조 변화		
	'00	'08	'15
IT	13.1	14.7	32.9
기계	24.2	14.9	14.1
석유화학	3.0	5.3	13.8
광석	8.2	24.3	10.4
장발기계	5.7	3.5	3.2
계	54.2	62.7	74.4

< 상위 5대 업종 서북 수입 시장 구조 >
(단위: %)

구분	서북 수입 구조 변화		
	'00	'08	'15
석유화학	3.1	26.2	32.4
IT	5.9	5.1	20.9
기계	19.1	13.3	13.2
광석	3.6	21.9	13.0
장발기계	3.7	2.0	3.5
계	35.4	68.5	83.0

자료 : 무역협회.

주 : 업종은 HS코드 기준으로 석유화학(HS 27), 자동차(HS 87), 기계(HS84), IT(HS85), 유기화학(HS29), 광물(HS26), 지방종자(HS 12), 플라스틱(HS39), 구리(HS74)로 분류.

4. 권역별 對韓 수입 현황

- 최근 중국의 對韓 수입 중 중서부 지역 비중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동, 중부, 서북 지역의 한국산 제품 점유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확대
 - 중국의 對韓 전체 수입 중 중서부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부지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중부, 서남, 서북 비중이 각각 2000년 2.4%, 1.0%, 0.3%에서 2015년 7.1%, 2.3%, 1.2% 증가했지만 동부지역의 비중이 여전히 높음
 - 금융위기 이전에 환발해, 화동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 점유율 하락
 - 환발해, 화동 지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각각 2000년 11.4%, 9.2%에서 2007년 15.3%, 12.9%로 상승
 - 동기간 산둥 지방의 한국 점유율은 28.7%에서 19.6%로 가장 많이 축소
 - 금융위기 이후 환발해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 상승

- 특히, 중부, 서남, 서북 지역의 한국 점유율은 각각 2008년 3.4%, 3.2%, 1.1%에서 13.6%, 5.3%, 5.3%로 동부 지역에 비해 크게 상승
- 중부, 서북 지역의 한국 점유율은 각각 2000년 7.0%, 1.6%에서 2015년 13.6%, 5.3%로 금융위기 수준보다 크게 확대

< 중국의 권역별 對韓 수입 비중 >

(단위: %)

구분	2000	2005	2010	2015
동북	7.3	3.3	2.6	2.9
환발해	13.9	14.6	14.1	11.4
산둥	15.0	12.0	12.0	11.1
화동	24.4	44.4	43.9	39.2
화남	35.7	23.8	25.0	24.8
중부	2.4	1.2	1.5	7.1
서남	1.0	0.5	0.8	2.3
서북	0.3	0.1	0.2	1.2

< 권역별 중국 수입 시장 중 한국산 제품 점유율 >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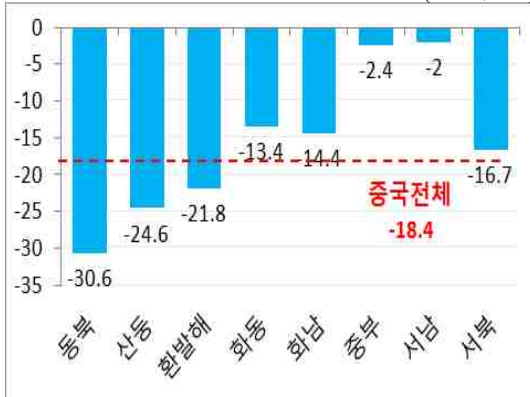
구분	금융위기 이전			금융위기 이후		
	'00	'07	격차	'08	'15	격차
동북	135	66	-69	55	63	08
환발해	11.4	153	39	134	104	-30
산둥	287	196	-91	142	147	05
화동	92	129	37	122	132	10
화남	90	83	-07	79	96	17
중부	70	33	-37	34	136	102
서남	58	36	-22	32	53	21
서북	1.6	08	-08	1.1	53	42

자료 : 무역협회.

○ 서부 및 중부의 수입 증가율과 對韓 수입증가율은 중국 전체 수입 증가율과 대한 전체 수입 증가율을 상회

- 부상하는 중서부 지역 수입 증가율은 중국 전체 수입 증가율을 상회
 - 2015년 화동, 화남, 중부, 서남, 서북의 수입 증가율은 각각 -13.4%, -14.4%, -2.4%, 4.0%, -16.7%로 중국 총수입 증가율 -18.4%를 상회
- 더욱이 최근 중국 전체 對韓 수입 가운데 비중이 늘어나는 중부,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對韓 수입 증가율이 크게 증가
 - 2015년 중부, 서북의 對韓 수입 증가율은 각각 78.9%, 35.5%로 중국의 전체 對韓 수입 증가율 -8.4%를 크게 상회

< 2015년 기준 권역별 총 수입 증가율 >
(단위: %)



< 2015년 기준 권역별 對韓 수입 증가율 >
(단위: %)



자료 : 무역협회.

4. 시사점

- 중서부 지역 중심의 고성장과 교역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별 산업 구조 및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 수출 전략이 필요

첫째, 중국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접근 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

- 중국은 지역마다 독특한 특징과 문화가 있고, 발전 수준과 인구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단일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각 지역의 시장 특성, 경쟁 환경, 입지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치·문화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법을 수립할 필요

둘째, 이미 발전 수준이 일정 궤도에 오른 동부보다 향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는 서부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

- 중국이 개혁개방정책 도입 이후 경험한 경제 성장은 동부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이 지역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과 중국 로컬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 그러나 서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 단계가 낮아 임금 경쟁력이 있고,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하는 것이 타당

셋째, 정부 주도의 중국식 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지방 정부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중국은 특유의 '관시' 문화가 있고, 정부 주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
- 중국 지역별 진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 관계를 수립해야 중국 진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음

넷째, 한·중 FTA 적극 활용하여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 중국과의 FTA는 2차례 관세 인하로 2016년부터 본격적인 활용이 기대되고 있어 대중국 수출기업에 대해 FTA 활용을 지원하여 FTA효과 극대화를 도모
-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과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국 서부지역의 공략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수입 수요를 점검하고 한·중 FTA의 특혜 여부를 확인하여 유망 품목을 선정할 필요 **HRI**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